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자강력제일주의의 기반

련 재 연

자강력제일주의는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힘을 비상히 강화하고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혁명정신이다.

자강력제일주의는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로선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자강력제일주의가 자기 나라 혁명은 자기 힘으로 하여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기반으로 하고있다는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강력제일주의의 기반은 자기 나라 혁명은 자체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이며 자강력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방식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입니다.》(《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단행본 37페이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은 수령의 혁명사상에 의하여 지도되고 수령의 혁명사상을 추동력으로 하여 전진하는 수령의 위업이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에 의하여 개척되고 승리적으로 전진하는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로선은 마땅히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고 그 요구를 반영한것으로 되어야 한다.

자강력제일주의는 바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혁명을 끝까지 해나가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으로 전진도상에 가로놓이는 모든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야 한다는것을 밝힌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기반으로 하고있다.

자강력제일주의는 무엇보다먼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기반으로 하고있다.

자강력제일주의는 혁명과 건설에서 자강력이 제일이라는 자각이며 믿음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진리를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사상의식은 사람이 지니는 창조적능력의 내용과 그 수준을 규정하는 요인이다. 사람은 자기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능력을 갖출것을 요구하며 사람의 힘, 능력은 요구실현의 수단으로 될 때만이 그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사상의식이 노는 역할은 그것이 어떤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사상인가에 따라 서로 다르다.

세계의 주인, 세계의 개조자로서의 사람의 본성적요구를 반영하고있는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자각이며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려는 의지이다.

사람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져야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세계를 자주적으로 개조해나갈수 있으며 자기 운명을 훌륭히 개척해나갈수 있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한 사람만이 자기스스로 자기 힘을 키우고 그에 의거하여 자기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자각을 가져야 자기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자기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게 된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자각과 자체의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려는 의지를 지닌 인민은 남의 덕이 아니라 자기 식의 투쟁방식, 창조방식으로 자기 힘을 천백배로 키우고 혁명과 건설을 제힘으로 해나간다.

사대주의와 허무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남을 쳐다보게 만들고 자기 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상적독소이다. 사람들이 사대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지면 정신적으로 무뎠해지고 남의 힘에 의존하면서 자기 힘을 키우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 힘을 믿지 않고 남을 쳐다보며 남의 힘에 의존하여서는 자기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없다.

력사와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외세의존은 예측의 길, 망국의 길이며 자력자강하는 길만이 살길이다.

자기를 믿는 사람은 강자가 되고 남을 믿는 사람은 약자가 되며 제힘으로 사는 사람은 흥하고 남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망하는 법이다.

자기 힘을 굳게 믿는 정신적강자들은 천리도 지척으로 보고 막혔던 길도 단숨에 열어나갈수 있지만 제힘을 믿지 못하고 남을 쳐다보는 정신적약자들은 지척도 아득한 만리로 보며 열려진 길로도 나갈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사대와 교조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투철한 신념과 의지, 강한 자주정신을 가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은 우리 인민에게 혁명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자면 어떤 투쟁정신을 지니고 어떤 신념과 의지로 싸워야 하는가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었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체의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여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이야말로 자기스스로 자기를 강하게 하는 힘을 지닐수 있게 하는 사상정신적요인이다.

자강력제일주의는 다음으로 자기 나라 혁명은 자체의 힘으로 하여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기반으로 하고있다.

자강력제일주의는 자기 힘을 키우고 철저히 그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투철한 각오와 의지이다.

자기 나라 혁명을 자기 힘으로 해나가자면 자기 힘부터 키워야 한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는 모든 활동에서 언제나 자기 힘을 키우는것을 첫 공정으로 삼는것은 창조적활동의 선후차를 가장 합리적으로 규정하는것으로 된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창조적활동의 성과를 담보하는 기본요인은 사람의 힘이다.

물론 사람이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데서 객관적조건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 물질기술적수단과 사회적환경이 어떠한가 하는데 따라 사람의 창조적활동이 보다 쉽게, 보다 빨

리 성과적으로 진행될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수도 있다.

그러나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사람의 활동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바로 사람자신이다.

자기 힘이란 곧 자기 나라 인민의 힘이다.

자기 나라 혁명은 자기 힘으로 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자기 힘, 자기 나라 인민의 힘을 키워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은 자기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 기초하고있다.

인민은 곧 하늘이고 전지전능한 존재이며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는 한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의 좌우명이였고 혁명신조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자기 인민을 믿고 자기 인민에게 의거한다면 자기 나라 혁명을 얼마든지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는 투철한 립장을 견지하여오시였다.

비록 오늘의 조건이 원만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조국을 세계에 당당히 올려세우겠다는 비장한 각오와 결심으로 충만되고 첨단과학기술도 능히 독점할수 있다는 야심만만한 배짱을 지닌 인민이 있는 한 얼마든지 자강력을 키울수 있으며 그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수 있다는것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였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은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매개 나라의 혁명에서 주인은 어디까지나 그 나라 인민이다. 자기 나라 혁명에 가장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는것도 자기 인민이며 자기 나라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 그에 맞게 혁명을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실제적인 담당자도 자기 인민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야 한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이 밝힌 근본원칙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자기의 역할을 다해나가자면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져야 하며 자체의 힘으로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나가는 불굴의 투쟁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대와 교조를 배격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자기 식대로 해나가야 한다.

시대와 력사가 전진하는데 따라 혁명의 환경과 조건은 달라질수 있지만 제힘을 믿고 자력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혁명의 원리는 변할수 없다.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찾아내어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자력자강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나갈 때 나라의 내부원천을 최대한 동원리용하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고수해나갈수 있다.

지나온 혁명투쟁의 력사는 자기 나라 혁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자각이 없이 남을 쳐다보면서 남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할 생각을 하게 되면 불피코 혁명을 망쳐먹게 된다는 교훈을 새겨주고있다.

자기 나라 혁명은 자체의 힘으로 하여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이 자강력제일주의의 기반으로 된다는것은 조선혁명의 력사가 보여주는 고귀한 진리이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자랑하면서도 옳바른 령도를 받지 못하고 자기를 지킬 힘이 없었던탓으로 사대와 망국을 숙명으로 감수하여야 했던 비참한 식민지약소민족이 바로 한세기전 우리 민족의 모습이였다.

그러나 **김일성**민족의 100년사는 파란많은 수난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 조국과 인

민의 존엄을 민족사상 최고의 경지에 올려세웠다. 우리 민족의 운명에서 일어난 모든 경이적인 사변들은 세월이 가져다준 우연이 아니라 자기 나라 혁명은 자체의 힘으로 하여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이 안아온 력사의 필연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었기에 우리 인민은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오건 자기가 선택한 자주, 선군, 사회주의길을 따라 신심드높이 나아가고있으며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국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고있는것이다.

백두의 천고밀림에서 창조된 연길폭탄정신이 군자리정신, 강계정신으로 줄기차게 이어지고 우리 조국이 백승의 력사만을 아로새길수 있는것은 우리 인민을 사상의 강자, 자강력의 강자들로 키우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오늘 우리 인민이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온갖 도전과 방해책동을 단호히 쳐갈기며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며 빛내어나가고있는것은 우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를 일관하게 관통하고있는 자강력제일주의를 떠나서 절대로 생각할수 없다.

오늘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밖에 없다.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으며 우리 나라가 통일되고 강대해지며 잘살고 흥하는것을 바라지 않는다.

자강력으로 개척되고 승리하여온 조선혁명의 력사는 자력자강의 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갈 때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가르쳐주고있다.

우리모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자강력제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인민의 꿈과 리상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가야 할것이다.